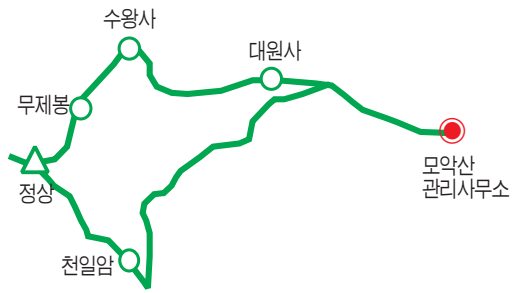




〈14〉 모악산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한국명산 16좌 원정대’의 산행이 지난 25일 전북 완주군 모악산에서 이뤄졌다. 이날 등반은 광주·전남·전북지역 등반 애호가 2100여명이 참석해 4시간여의 산행을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어머니의 품같은 산에 안기니 ‘뽕통더위’ 온데간데 없네

무제봉 정상선 푸른 김제평야가 한눈에

대원사 계곡물에 발 담그며 꿀맛 휴식도

33도에 달하는 뽕통더위 속에 이뤄지는 여름 산행은 고역이다. 내리쬐는 별도 별이지만, 후덥지근한 습도가 더욱 산행의 발걸음을 힘들게 한다. 하지만, ‘이열치열’로 더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등산객이 여전히 여름 산행을 즐긴다.

지난 25일 진행된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한국명산 16좌 원정대’의 15번째 산행지는 전북 완주군 구이면과 김제시 금산면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모악산(794m)이었다. 이번 산행에 참석한 원정대 인원은 2100여 명. 340여 명으로 시작된 첫 산행에 비교하면 14개월 만에 숫자가 7배가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5월25일 계룡산 국립공원을 첫 등반으로 시작한 원정대의 산행이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그 열기는 한여름 더위처럼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모악산 산행은 모악산 관광단지 주차장에서 시작해 대원사~수왕사~무제봉~정상~천일암~선녀 폭포를 거치는 4시간여의 코스였다.

호남 4경의 하나로, 지난 1971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모악산은 김제평야의 동쪽에 자리하고 있어 호남평야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이다. 또한, 모악산은 예로부터 미륵신앙의 본거지로 여겨져, 증산교 본부와 더불어 30~40년대 각종 신흥종교 집단지지도 관심을 끌었다고 한다.

출발지인 주차장에서 대원사에 이르는 길은 계곡 옆을 따라 푸른 숲길을 지나는 평범한 산 길이다.

등반 전 내리쬐는 한여름 피아프에 산행을 걱정했지만, 숲에 들어서면 순간 햇살마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숲길에 계곡의 물소리까지 귀를 시원하게 하면서 원정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한국명산 16좌 원정대’의 산행에 참여한 광주·전남·전북지역의 등반 애호가들이 모악산 정상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하지만, 대원사에서 정상에 이르는 길은 40~60도에 이르는 가파른 급경사여서 만만하게 볼 코스는 아니었다. 더운 날씨 탓인지 일부 원정대들은 산행을 뒤로 한 채 아예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더위를 쫓았다.

이미 계곡 그늘 밑에는 돛자리를 깔고 자리를 잡은 원정대들도 많았다. 이들은 “역시 더운 여름은 계곡이 최고”라며 입을 모았다.

하지만, 원정대 대부분은 구슬땀을 흘리며 정상을 향했다. 여름방학을 맞은 자녀를 동반한 원정대들도 눈에 띄었다.

원정대 정순원(여·45)씨는 정상을 향해 힘겨운 발걸음을 내딛으면서도 중학생인 자녀의 손을 꼭 잡고 ‘완주’를 독려했다. 이날 30도를 웃도는 기온에 산 중턱쯤에서는 바람까지 불지 않아 등산복은 땀으로 범벅이 됐다.

그러나 산 정상 인근 무제봉에 올라서니 능선을 따라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원정대들의 ‘청량제’ 역할을 해줬다.

무제봉에서는 멀리 전주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고, 푸른 옷을 두른 김제 평야가 한없이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잠시 무제봉에서 휴식을 갖고 땀을 식힌 원정대들은 곧바로 산 정상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고, 10여 분만에 산 정상에 올라설 수 있었다.

산 정상 인근에서 꿀맛 같은 점심을 한 원정대들은 천일암 방면으로 하산을 시작했다. 가파르고 바위가 많아 하산하는 데 애를 먹었지만, 우거진 숲 속에서 들려오는 매미와 풀벌레 합창 소리가 심심치 않게 됐다.

4시간의 산행을 마치고 내려오는 대원사 인근 계곡에는 이른 피서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원정대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계곡물에 머리와 발을 담그며 땀을 식혔다.

원정대 김순철(61)씨는 “3~4시간 산행을 한 뒤 계곡에 먹을 감으며 땀을 씻는 게 여름 산행의 제맛”이라며 “지난해 10월 내장산 산행부터 참가를 했는데, 사계절을 거쳐 엄홍길 대장과 국내 명산을 등반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했다.




사람보다 높은 산은 없다
다가가기도 어렵고
헤아리기도 힘들다
그래도 올라야 할 산이라면

진실하라
진실하라

진실이 온다
이웃도어의 진실-밀레



WWW.MILLET.CO.KR
MILLET MOUNTAIN BY EXPERIENCE